

Global Market Report 14-046

2014. 12. 29

인도네시아 신정부 출범과 향후 경제정책 전망



목 차

요 약

I.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 분석 / 1

- 1 | 1. 대선 결과 및 의의
- 3 | 2. 신정부 내각 주요 인물 및 평가
- 7 | 3. 정부부처 개편 현황

II.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주요정책 분석 / 9

- 9 | 1. 경제·통상 정책
- 10 | 2. 투자 및 산업 정책
- 12 | 3. 인프라 강화 정책

III.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당면 과제 / 15

- 15 | 1. 경제성장 회복
- 16 | 2. 부정부패 척결
- 16 | 3. 열악한 인프라 개선
- 18 | 4.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IV.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20

- 20 | 1. 신정부 경제 정책에 따른 기회 요소
- 22 | 2. 신정부 경제 정책에 따른 위협 요소
- 24 | 3. 한-인도네시아 교역 및 투자 전망

요 약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 친서민·개혁주의 성향의 조코위 도도(Joko Widodo, 조코위, 인도네시아에서는 통상 긴 이름을 줄여서 부른다) 대통령이 1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의 제 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인도네시아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한 후 치러진 세 번째 대통령 선거이며 2004년 이후 10년 만의 정권교체이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과 그의 러닝메이트인 유습 칼라(Yusuf Kalla) 부통령은 모두 사업가 출신으로 권력계층인 군부세력과 연관이 없이 당선된 인도네시아의 첫 문민정부이다. 인도네시아 국민이 가난한 목수 아들이며 정계 신인인 조코위를 차기 지도자로 선출했다는 것은 기존 기득권 중심의 권력구도에서 벗어나 서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염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후 '일하는 내각(Working Cabinet)'이라고 이름을 붙인 내각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국정운영에 돌입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자급자족 경제 구현을 주장하면서 통상, 천연자원 등 일부 분야에서는 보호주의 성향을 띄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 확충, 산업고도화 등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산업을 개방하겠다는 것이 조코위 대통령의 입장에서 단순히 국수주의 성향 정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신정부의 국가 발전과 개혁 의지는 확고하지만 조코위 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많고도 쉽지 않다. 2009년 이후의 최저 경제성장을 회복,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프라 개선 및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등 주요 분야에서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만 한다.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개혁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인프라, 특히 신정부가 강조하는 해양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혁·친기업주의 노선과 함께 천연자원, 내수산업 보호 등 민족주의 성향도 공존하고 있어 자원, 소매유통 등 일부 분야에서는 진출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우리 기업의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I.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 분석

1. 대선결과 및 의의

□ 조코 위도도 (조코위), 제 7대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취임

- 치열한 접전 끝에 53.15% 득표율로 당선된 조코위 대통령이 14년 10월 20일, 제 7대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취임

<선거 결과>

조코 위도도 (Joko Widodo) (부통령 : 유습 칼라)		프라보위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부통령 : 하타 라자사)	
	투쟁 민주당 (PDI-P 당) 53.15%		위대한 인도네시아 운동당 (Gerindra) 46.85%

- 이번 대선은 1998년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이후 세 번째 치러진 대선 중 가장 치열한 접전 기록
- 결과발표 이후 프라보위 후보의 선거불복, 야당인 메라푸티(Merah Putih) 연합의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폐지 등 취임 전부터 조코위 대통령의 개혁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
- 우여곡절 끝에 조코위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첫 직선제 정권교체를 기록하며 취임하여, '일하는 내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집정 1기 내각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에 돌입

□ 대선 결과의 의의

- 첫 직선제 정권교체
 - 1998년 수하르토의 32년 독재 이후 2004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된 후 3번째 치러지는 대선으로 첫 직선제 정권교체라는 의미가 있음
 - * 첫 직선제 대통령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임 대통령은 2009년에 재선에 성공, 연임 제한 규정으로 이번에는 출마하지 못함
- 조코위 대통령 및 유습 칼라 부통령 모두 사업가 출신으로 첫 문민정부의 탄생
 - 수하르토의 오랜 군부 통치와 국가 통합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이전까지 군인 출신이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최초의 직선제로 당선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의 민주적 정치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문민정부 탄생에 이름
- 역대 대선 가운데 기존 권력계층과 정계 신인 간의 치열한 접전
 - 1998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선 중 인도네시아 국민의 지지가 가장 첨예하게 양분되었고, 이번 대선은 목수의 아들로 성장한 가구사업가 출신인 조코위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대표 명문가 출신인 프라보워 후보의 대결이었다는 점이 크게 주목을 받음



- 1961년생, 자바섬 중부 수라카르타시 출생
- 인도네시아 가자마다(Gadjah Mada)大 삼림공학과 졸업
- 가구사업 도중 수라카르타시 시장 출마·당선 (2005.1)
- 자카르타 주지사 출마·당선 (2012.10)
- 비 명문가 출신에 소탈하고 저돌적인 정책추진으로 서민층 인기가 높음

조코 위도도 (투쟁민주당: PDI-P 당)

- 가구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조코위 대통령은 2005년 자바 중소도시인 수라카르타 시장직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 2010년 자카르타 주지사로 당선된 이후 현장 위주의 친서민 정책을 펼치면서 친서민적, 개혁적 이미지를 얻게 됨

- 한편 프라보워 후보는 인도네시아 대표 명문가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음. 그의 할아버지는 국영은행인 BNI의 설립자이고 그의 아버지는 수하르토 하에서 경제장관을 역임한 경제학자임. 또한 프라보워 후보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동기이며 수하르토의 사위가 되면서 군 요직을 두루 역임함
-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경제, 민족주의, 종교’
 - 조코위 및 프라보워 모두 선거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자주권 확보, 강력한 자급자족 경제 구현을 주장하며, 민족주의 및 보호주의 경제 공약을 제시
 -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에서 상호주의 원칙, 외국인의 국내 자산 규제를 통해 보유하는 등의 원칙을 주장함에 따라 프라보워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인사였음
 - 지난 4월 총선에서의 이슬람 정당들은 이슬람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조코위 대통령이 싱가포르 출신의 중국인이고 기독교라는 소문을 퍼트리는 등 종교 관련 논쟁이 선거기간 동안 이슈화되었음

2. 신정부 내각 주요 인물 및 평가

□ 조코위 대통령, ‘일하는 내각(Working Cabinet)’ 발표

- 총 34명으로 구성된 내각은 전문가 출신 20명, 정치인 14명으로 구성, 여성 장관이 8명으로 역대 내각 중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자바 출신은 26명, 비자바 출신은 8명으로 이뤄짐
- 조코위 대통령은 부패 척결 공약의 첫 걸음으로 역대 정부 중 최초로 부패척결위원회(KBK)와 금융정보분석원(PPATK)에 명단을 제출해 인물 검증을 실시함. 위원회가 부패 혐의가 있다고 심사한 8명은 새 인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팀 내각에 대한 엇갈린 평가

- 경제조정장관, 재무장관 등 국가개발기획 장관 등 전략적인 경제부처에 경제전문가가 임명되면서 경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 고조
 - 아스트라 인터네셔널 (Astra International), 고벨 그룹 (Gobel Group) 등 주요 대기업 현·전직 임원이 장관으로 등용되면서 새 정부의 경제팀은 비즈니스 지향적(Business-oriented)이라는 평가를 받음
 - 경제팀 장관들의 과거 이력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지지하고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택할 것으로 기대
-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이 여소야대인 정치적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타협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시장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임
 - 산업부, 인력부장관 등 일부 장관은 해당 분야에 경력이 없는 정치인 출신이며, 공기업부 장관, 내무부 장관 등 투쟁민주당(조코위 대통령 소속당) 메가와띠 총재의 최측근 인사가 다수 포함되었고, 인력개발문화 조정 장관으로는 메가와띠 총재의 딸이 임명됨
 - 내각 발표 다음 날인 월요일(27일), 자카르타종합지수는 약 0.95% 하락, 5,024.29로 마감했으며 대 달러 루피아 환율도 0.52% 하락하여 12,108 루피아를 기록. 인근 동남아 국가 증시는 회복세, 통화 강세로 마감했던 것을 감안하면 두 지표의 하락세는 내각 발표에 따른 시장 반응으로 볼 수 있음

□ 주요 협회 및 바이어 반응

- (W사, 무역업)
 - 2015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조코위 대통령이 얼마나 빨리 인프라 공약을 실행하고 행정개혁을 단행하느냐에 따라 5.5%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비효율적인 행정, 물류, 만연한 부정부패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로 보고 있으나, 약한 정치적 기반을 극복해야만 함
 - 한편 조코위 정부의 정책 중 일부는 보호주의 성향을 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자원 분야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J사, 자원)

- 조코위 대통령 취임으로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봄. 특히 자원분야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오일 마피아'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자원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 끼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는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추진으로 역내 자유무역과 시장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일부 산업은 경쟁력이 약해 개방 준비가 안됐다고 판단됨. 조코위 정부는 초기에 자국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추진 필요

○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 조코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 절차 간소 및 효율화 정책으로 더 많은 외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조코위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개발, 복지 혜택 등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아지고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계층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경제 부처 주요 인물

○ 소피안 잘릴 (Sofyan Djalil) 경제조정부 장관



- 국영기업장관 (2004-2007), 정보통신부 장관 (2007-2009) 역임
- 국영기업 장관 재직시 전문 CEO를 공기업 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공기업 개혁, 민영화 추진에 노력 기울이고, 정보통신부에서도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부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한편 소피안 장관은 유습 칼라 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과 2012년 인니 전력청(PLN) 조달 부패 사건으로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임명에 논란이 있었음

○ 밤방 브로조느고로 (Bambang Brodjonegoro) 재무부 장관



- 전 재무부 차관 (2013-2014)
 - 밤방 장관은 차관 임명 전에는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 경제학과장을 역임하는 등 경제학자로 활동했으며 지방 재정 분권화, 빈곤퇴치 등의 주제로 학술 자료를 주로 발표함
 - 밤방 장관은 지난 9월 새 정부는 현재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밤방 장관은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짐

○ 라흐맛 고벨 (Rachmat Gobel) 무역부 장관



- Gobel Group (Panasonic) 사장 (1994~현재)
 - 고벨 장관은 고벨 그룹 (Gobel Group) 후계자 중 한 명으로 현재 Gobel Group (Panasonic) 사장을 역임 중임. Gobel Group은 일본 Panasonic과 합작한 현지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전자 대기업 중 하나임
 - 취임 이후 고벨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년 후 현재 수출 규모의 3배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현지 경제연구소인 LIPI(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는 무역분야에 경험이 많은 고벨 장관을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음
 - 한편 고벨 장관은 일본 주오(Chuo) 대학을 졸업하였고, 2006년부터 인도네시아 일본 친선협회 회장직을 맡는 등 일본과 인연이 깊음

○ 살레 후신 (Saleh Husin) 산업부 장관



- 국민양심당 (Hanura) 정치인
- 2001년 국민각성당 (PAN) 당원으로 정치에 입문함.
- 지난 정권에서, 의회 교통, 공공사업, 주택 분과(Commission V)에 소속되어 활동

○ 수디르만 사잇 (Sudirman Sahid)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



- 방산 국영기업체인 Pindad 사장
- 국영석유회사인 Pertamina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부패 근절 비정부단체를 설립하는 활동을 하는 등 반부패 운동가임. 부정부패가 만연한 부처에 수디르만 장관을 임명한 것은 과감한 결정이었다는 평가이며 부패 근절의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음
- 수디르만 장관은 취임 후 연초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미가공 광물 수출 제한 조치 유지 예정이라고 밝힘

3. 정부부처 개편 현황

□ 조코위 대통령, 전 정권과 동일하게 34개 중앙부처 유지

- 조코위 대통령은 당선 이후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목적으로 기존 34개 중앙부처를 27개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전 정권과 동일한 체제 유지
 - 신정부의 주요 공약 달성하기 위해 기존 3개 조정부*를 4개로 늘리고, 일부 부처의 관할 조정부를 변경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등의 조치 단행
 - * 각 분야의 조정부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관할 정부부처 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 1) 조코위 대통령은 '해양 중심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조정부를 신설하고 산하기관으로 해양수산부, 교통부, 관광부, 에너지광물자원부를 포함

- 2) 지난 정권에는 경제조정부 산하였던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국가개발기획부는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등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부처임
- 3) 또한 기존 인력개발조정부 산하에 있었던 인력부는 경제조정부 산하로 이동하면서 인력부의 정책이 기존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II.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주요정책 분석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자급자족 경제 구현을 주장
- 통상, 천연자원 및 일부 내수 산업에는 보호주의 성향 띄고 있음
- 단, 이는 국가의 자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프라 확충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은 개방하고 일부 산업은 규제를 통해 보호하겠다는 입장임

1. 경제 · 통상 정책

□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 통상 정책·수입규제 기조 표명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하여 상대 국가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이익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입세, 인증제도 등의 비관세 장벽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 무역부 고벨 장관은 취임 후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당분간 보류하고 자국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힘
 - 고벨 장관은 11월 APEC 참가 이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FTAAP)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시장 개방보다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전 정권부터 중국-ASEAN FTA로부터 국내 산업이 피해를 크게 봤다는 입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정품목 가격, 수출물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신무역법, 신산업법 등 자국 산업 보호조항이 포함된 법이 이미 법제화되어 있음
- 경상수지 적자 해소 위해 수입규제 기조 유지
 - 2013년 신흥 시장 불안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취약점으로 간주되어 온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있음
 - 수출 이상의 수입 급감 영향으로 무역수지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소득 및 서비스 적자로 경상적자 지속

2. 투자 및 산업 정책

□ 외국인투자 개방 노선 유지

-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후 인프라 및 전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7%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에서는 개방 정책 펼칠 것으로 보임
-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공식 국제행사인 APEC에 참가하여 신정부의 해양 인프라, 조선업 육성 계획 등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에 호소했으며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는 토지 매입 및 복잡한 비즈니스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냄
-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의 외투기업 사업 인허가 발급 시스템에 대하여 6개월 내 개선을 지시

* "BKPM에 시스템 개혁을 위한 6개월의 시간을 줬다, 이것은 투자허가 병목문제를 푸는데 매우 중요하다"

* "일단 이 시스템 개혁이 완료되면 이를 각 주정부와 군청, 시청 단위에서도 시행하게 될 것"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언론 '조코위 대통령 언급' 인용)

□ 단, 상호주의 원칙 도입,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분야는 규제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외국계 은행의 국가에서도 인도네시아 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아직 많은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특히 금융과 같은 일부 산업의 경우 외국인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은행의 외국인 매입 규제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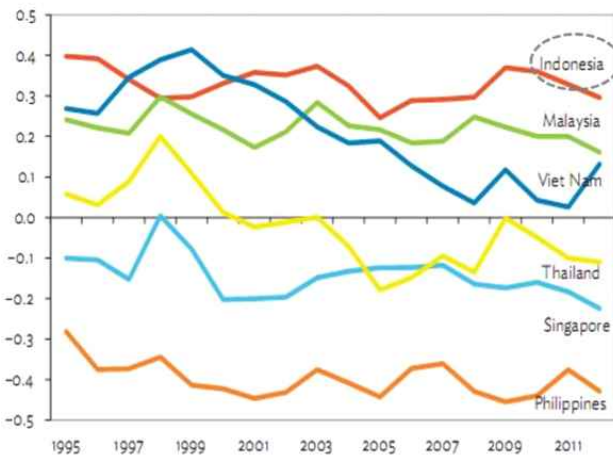
□ 산업 고도화를 통한 동남아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 노력

○ 인도네시아의 경우 주요 수출품은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상품이지만 주요 수입품의 경우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취약한 교역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역수지 악화가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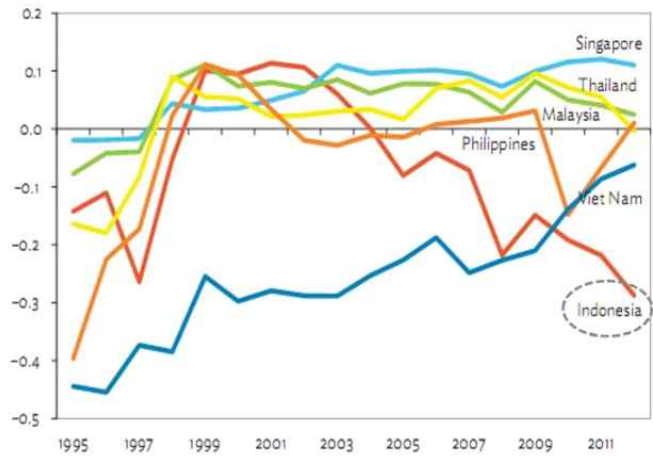
- 무역수지특화지수*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1차 상품에서 역내 최고인 반면, 공산품은 역내 최저

*해당 품목의 총 교역 (수출 + 수입) 대비 순수출 (수출-수입) 비율 기준

1차상품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비교



공산품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비교



자료원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순 조립 가공 및 1차 상품 기지 역할에서 벗어나 산업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동하고자 함

- 인도네시아가 세계은행이 경고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글로벌공급사슬 (Global Supply Chain)의 업그레이드가 필요

○ 최근 중국, 베트남 등의 경영불안, 태국 정치파동, 임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동남아 소재 다국적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추세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분야 유치확대 도모

<주요 분야별 움직임>

- 일본 자동차 분야 생산 공장 확충
 - Toyota 약 2억 달러를 투자해 서부 자바에 제2 엔진공장 착공
 - Suzuki 엔진(현 생산량의 3배) 및 조립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해 7.8억 달러 투자 예정
 - Honda 3.3억 달러를 투자해 현재 생산량의 3배인 18만대 규모 공장 설립 예정
- 태광실업은 글로벌 발주처의 생산기지 다변화 정책으로 인도네시아에 생산공장 건설 중
 - 총 규모 46 헥타르 부지(Subang)에 3개 공장 건설
 - 월간 1 백만 켈레 생산, 13,000명 인력 채용

4. 인프라 강화 정책

□ 경제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지목되는 낙후된 인프라의 경쟁력 강화

- (항만) 국내 섬 간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항만건설에 총 92건, 124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단기 목표로 신정부 임기인 2019년까지 10조 루피아가 투자되는 ‘해양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 * 탄중쁘리옥 항구 현대화 공사 (20억 달러) 등

- * 항만관리공단 뵤린도(PT Pelindo), 조코위 대통령 공약 ‘해양고속도로’ 실현을 위해 인니 동부지역 항구 24개 개보수 계획 발표
- * (동·서부지역 간 여객 수송 효율화) 탄중빼락, 베노아, 암본(말루꾸), 비악(빠뿌아), 비똥(북부술라웨시), 마까사르(남부술라웨시), 마나도(북부술라웨시), 빠레빠레(남부술라웨시), 소롱(서부빠뿌아), 따라간(동부깔리만탄), 떠르나떼(북부말루꾸) 등 주요 항구 11개 개보수
- * (화물수송 편익 증진) 동부자바 탄중빼락항(수라바야), 바겐당항(삼뻏), 바뚜리찐항(꼬따바루), 부미하르조항(꾸마이), 림바르항(마따람), 뜨나우항(꾸똥), 반자르마신 컨테이너터미널 등 13개 항구 개보수 추진

- (공항) 2022년까지 총 45개(2017년까지 24개)의 신공항 건설 추진
 - * 수까르노·하타 공항 확장사업을 위해 총 12억 달러(자체예산) 투자 예정
 - * 현재 총 3개 터미널이 있으며 추가로 1개 공항이 추가로 개장할 경우, 현재의 4배 규모인 총 9천만 명의 승객 수용가능 → 한국기업 입찰 참가 기회

- (도로·철도) 2019년까지 총 연장 2,000km 도로망 신설 및 개보수, 2030년까지 자바-발리, 수마트라, 깔리만탄, 술라웨시, 빠푸아 섬에 도시철도 3.800km 포함, 총 연장 12.100Km 철도망 건설 추진

* 철도망 건설 총 건설비용 600억 달러 (30% 인니정부 / 70% 민간투자) : 여객 수송용 기관차 2,805량, 객차 28,335량, 도시철도차량 6,020량, 화물 수송용 기관차 1,995량, 화차 39,655량 포함

- (PPP) 필요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프로젝트 확대 중
 - * '09년 88개 PPP 프로젝트 발굴 → '13년 투자 결정 21건 외 27개 PPP 발표
 - * 수카르노 하따-망가라이 공항철도(26억 달러), 반둥 모노레일 건설(29억 달러) 등
- (정유 및 송배전 분야) 만성적인 연료부족 및 전력난 해소를 위한 노후설비 개보수, 신규 건설 프로젝트 증가

* 국영 정유사 Pertamina 30만 배럴 정유시설 건설(수마트라 Plaju/95억 달러), 국영전력사 PLN 송배전망 건설 프로젝트 (4억 달러, 일본 JICA 자금) 등
 * 인니 국영 비료 회사 Pupuk Inod의 비료공장 (동부자바/13억 달러), 정유시설 건설(파푸아 /52억 달러)

□ 한편, 신정부 및 대통령은 각종 채널을 통해 'Sea toll road' 건설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의지 거듭 표명

- 총 150조 루피아가 투입되는 24개 항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국 물류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프로젝트 완료시 동-서간 물류비가 현재 대비 최고 50%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

□ 해양 선진국가(Maritime-axis) 실현을 위해 조선업 육성 병행추진

- 드로요노 수실로 해양조정장관은 11월 11일 부처간 회의에서 인센티브를 통해 바탐 자유무역지대에 집중된 조선업의 타 지역 확산추진을 언급
 - * 인도네시아 전체 조선사(198개) 중 110개가 바탐 자유무역지대에 위치
- 현재 자체 설계·생산능력 부족으로 10,000 DWT이상급 선박건조 가능 조선소는 6개에 불과

<조코위 대통령 분야별 주요 공약>

- ▶ **부패 척결 및 정부의 효율성**
 - 입법, 행정 및 사법부 개혁, 투명한 정보 기술, 부패척결위원회의 역할 강화
 - 지방 정부 권한 일부 이양,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 ▶ **재정정책**
 - 세율 16%로 확대 / 정부부채 축소
 - 인프라 개발, 교육, 보건, 주택 분야에서 정부 배정 예산 확대
- ▶ **투자**
 - 외국인투자에서 상호주의 원칙 적용
 - 단, 외국인이 국내시장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필요한 규제 도입
 - 정부부처, 중앙 및 지방 정부 간의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여 비즈니스 환경 개선
- ▶ **제조업·무역**
 - 천연자원 가공을 위한 제조업 육성
 - 제조업의 해외 수입 비중 축소
 - 자바 외 지역에 5-7개 산업단지 건설
- ▶ **에너지**
 - 에너지 자주권 확보
 -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투자 증진을 위해 탄력적 인센티브 제공
- ▶ **연료 보조금**
 - 5년간 점진적 연료가격 인상을 통한 보조금 삭감
- ▶ **인프라**
 - 연 5% 물류비용 감축을 위해 육상, 해상, 항공 통합 교통 시스템 개발
 - 1,000km 고속도로 건설, 10개 신공항과 10개 신항만 건설
 - 연료 보조금 감축을 통해 연 240-300억 달러 절감 가능, 인프라 개발에 투자
- ▶ **의료 및 교육**
 - 무료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Healthy Indonesia Card’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공공 의료서비스 개선
 - 12년 무상 교육 (Smart Indonesia) 도입을 통해 교육의 질 및 수준 향상
- ▶ **농업**
 - 수출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식량 수입 조절 등을 통한 식량 자주권 확보
 - 농업 효율성 증대(종자개량, 비료보조금), 농업 인프라 복구, 팜원유 수출세 감소

III.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당면 과제

1. 경제성장 회복

- 2014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견조한 민간소비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와 투자 부진으로 2009년 이후 최저 성장률 기록
 - * 2010년부터 연간 9%씩 증가하던 투자규모가 2013년에는 4.7% 증가에 그친 반면 민간소비는 5.2% 성장하면서 GDP 성장률의 50% 이상을 차지

부문별 인도네시아 GDP 구성비(%)



자료원 : World Bank

- 2015년에는 신정부 정책 기대, 수출 개선 및 양호한 소비 흐름 속에 힘입어 반등이 예상되나, 수출 회복 지연 우려, 자본 유출 등 금융 여건 급변 가능성과 신정부의 신뢰 확보 여부 등에 유의가 필요
-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가 '중진국의 함정' 리스크에 빠질 위험이 있지만 풍부한 노동력, 유리한 인구구조 및 빠른 도시화율 등 고속 성장속도를 되찾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 갖추고 있다고 판단
- 신정부는 인프라 확충, 부정부패 축소,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개선, 노동 경쟁력 및 에너지 효율 강화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야만 중장기적인 고속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 부정부패 척결

- 인도네시아 부정부패로 인해 자원 배분의 왜곡과 성장 제약 발생함에 따라 차기 대통령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
 - 인도네시아 기업경영 저해요인 Top 5 중 '부패'가 1위
 - 인도네시아 불법자금 및 뇌물 공여지수는 144개국 중 87위, 싱가포르(3위)을 비롯한 주요 동남아 경쟁국보다 열위(말레이 37, 태국 84, 필리핀 86 / 한국 52)
- 유도요노 대통령은 정권 1기 동안에는 부패척결위원회(KPK)의 역할 강화 등 부정부패 척결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집권 2기에는 체육부장관, 민주당 재무담당자 및 부사무총장이 대형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
 - 2004-2013년 부패척결위원회 구속건수는 총 385건, '13년에만 전년 49건에 대비 50% 증가한 70건 적발
 - 구속내용 : 국회의원 및 지역대표 72건, 장관 9건, 대사 4건, 주지사 9건, 시장·군수 34건, 판사·검사 8건, 일반공무원 114건 등

3. 열악한 인프라 개선

-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투자 비중은 과거 10년 간 GDP의 약 3~4%에 불과, 중국(10%), 인도(5.7%)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인도네시아 국제 물류지수* 순위는 66개국 중 53위(말레이 25, 태국 35, 베트남 48), 항구 인프라는 144개국 중 77위**
 - * 2014 Logistics Performance Index(World Bank)
 - ** WEF(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4 - 2015

2014년 주변국 항구 경쟁력 순위

항목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종합순위	72(82)	64(74)	76(61)	20(25)	95(98)	112(110)
항구	77(89)	53(59)	54(56)	19(24)	101(116)	88(98)

* 주 : 괄호 안()은 2013년 순위

국제 및 국내 운임 비교표

행선지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수마트라	태국	말레이시아
운임	1,200	1,250	2,000	1,375	600	500

* 쌀 또는 과일 컨테이너(20 feet) 1개 기준 / 편도 / 도착지 자카르타 2014.11월 기준

- 이러한 인프라 부족 현상은 섬 간의 심각한 개발 불균형 초래
 -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자바섬이 총 국가 GDP의 59.1% 차지하고 있으며 수마트라까지 포함할 경우 인도네시아 서부지역이 83.1%로 개발 불균형 심각

지역별 GDP 분담률(2013년 기준)

지역명	GDP(십억 루피아)	GDP 비중(%)	비고
Sumatera	1,804,588.26	24	83.1%
West Java	2,570,651.06	34	
Central Java(Yogyakarta 포함)	687,439.94	9.1	
East Java (Bali 포함)	1,230,882.64	16	
Kalimantan	657,262.86	8.7	16.9%
Sulawesi	349,350.73	4.6	
Papua	144,045.33	2	
Other islands	117,714.04	1.6	
총계	7,578,118.87	100	100%

자료원 : BPS(인도네시아 통계청)

-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현실적 제약 극복 필요
 - 국가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보조금 축소를 통해 재원 확보와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 해결 필요. 특히 토지 문제는 인프라 사업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집단 민원을 염려하며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있음

4.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투자 저해요인을 극복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 필요

- 외국인투자는 민간투자의 약 70% 차지하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
 - 2013년 하반기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 위기설, 선거시즌 등으로 인한 관망세 속에서도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됨
 - * 2011년 US\$ 195억 달러→2012년 US\$ 245억 달러→2013년 US\$ 286억 달러
 - * 2014년 3분기까지 투자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18%, 투자금액은 3% 증가
- 하지만 경직되어 가는 노동시장, 행정 비효율, 제반비용 상승 등이 투자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1) 경직되어가는 노동시장

- 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상급노조와 연대하여 외국 경영진을 감금하는 등의 강성노조 불법 위협사례 발생
- 자국인력 유치 및 해외인력 유인요소를 뺀 나머지 주요 노동시장 관련 지표는 주변국에 비해 열세(임금협상, 고용/해고 자율성 등)

주요 노동관련 지표 : 인도네시아 vs 주변국 순위 (총 144개국)

(단위 : 위)

항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중국	베트남
노사협력	46	14	29	32	58	79
임금협상 유연성	114	33	86	116	84	60
고용/해고 자율성	32	9	104	23	15	65
임금대비 생산성	30	2	27	50	15	23
자국인력유지도*	32	9	60	33	31	84
해외인력 유인요소**	25	12	82	36	27	74

자료원 : WEF(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4 - 2015

* 재능있는 인력을 국내에 머물도록 하는 매력도 / ** 재능있는 해외인력 유치 매력도

2) 행정비효율, 무리한 정부 정책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낮은 경쟁력

- (인허가 등 행정처리 미흡)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광산, 인프라 관련 중복 인허가 발급으로 혼란 초래
- (무리한 정부정책) 세수확대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수시로 법령 및 규제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항목 등으로 외국 기업 피해 야기는 물론 제도 실효성도 저해

- 3) 최저 임금, 가스 및 전기 요금, 공단 임차료 등 제반 생산비용 상승
- 근로자 최저임금은 강성노조와 제조투자 FDI 증가, 연내 예상되는 보조금 연료 가격 인상 등으로 향후 지속상승 예상
 - 전기요금도 지난 5년간 사용자별로 연평균 5~18% 상승했으며, 특히 2014년에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년대비 65%로 대폭 인상
 - 자카르타 인근 주요공단 부지 매매 가격도 지속 상승, 리뽀 찌까랑 공단은 4년새 56.3%, 한국기업이 다수 입주한 자바베까는 50%, 스루야 째따는 37.5% 인상
 - 가스가격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1% 인상되었으며 2013년 이후 7.6달러대 지속유지

V.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신정부 경제 정책에 따른 기회요소

□ 신정부는 국가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

- 인프라개발, 부패근절, 정부부처의 효율적 투자유치 확대, 재정건정성 및 인프라 재원 확보를 위한 유가 보조금 축소 등의 개혁안 잇따라 발표
 - 1) 10월 26일, ‘일하는 내각(Working Cabinet)’이라 슬로건 아래 개혁을 뒷받침 할 집정 1기 내각 출범
 - * 전문가 20명, 정치인 14명 / 여성 8명, 남성 26명 / 자바 26명, 非자바 8명
 - 2) 해양고속도로(Tol Laut)* 구축, 225억 달러 규모 15,000MW 발전소 건설, 관개용 댐 49개 건설(매년 5개) 등 대형 인프라사업 발표
 - * 인니 동부지역 항구 24개 개보수
 - 3) 부패 척결 공약의 첫걸음으로 역대 정부 최초로 부패척결위원회(KBK)와 금융정보분석원(PPATK)에서 내각 후보자 사전검증 실시부패 혐의자 8명 교체
 - 4) 내부 공모 및 경쟁절차를 통해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었던 기존 시스템보다는 투명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지원자의 부패척결위원회 사전검증을 통해 부패 근절
 - 5) 리터당 2,000 루피아(2014.11.18) 유류가격 인상(유가 보조금 축소)
 - 인도네시아는 연간 230억 달러 규모의 유류 보조금으로 재정과 경상수지 등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 * 예상 재정절감효과 : ‘14년 5.5억 달러, ’15년 78억 달러

□ 신정부 개혁에 따른 진출 기회 확대

- 예산 확보, 토지 보상 문제 등의 현실적인 제약 있지만, 조코위 대통령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인도네시아 경제개발계획(MP3EI)* 등의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
 - 신정부는 지난 정권이 수립한 MP3EI 계획의 지속 추진을 천명했으며, 조코위 대통령의 해양 강국 비전에 맞춰 일부 수정·발표 예정이라고 밝힘
 - 한국은 MP3EI 이행을 위한 주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 모델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MP3EI(Master 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 인프라 개발은 자금과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컨소시엄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기업(건설 79, 컨설팅 67)들이 기득권층을 형성
 - * 주요 기업 : 마루베니, 스미토모, 이토추, 가와사키 중공 등

-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가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대형사업들이 계획 발표 후 담보상태(순다해협 대교건설 등)이며 ODA를 비롯한 외부원조 및 IPP, PPP방식을 선호하므로 진출을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중앙 및 지방정부 수장들의 선심공약성 프로젝트와 작더라도 돈이 되는 실속 있는 프로젝트의 선별이 중요

- 외국기업을 활용한 인프라 진출도 바람직, 특히 인도네시아 최대 인프라 원조국인 일본의 공적자금과 일본 업체와의 제휴도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 * JICA는 DAC 권고에 따라 외형상 언타이드 원조비율이 85~90%를 상회하나 실제 일본기업 프로젝트 수주율은 평균 85%로 압도적임

2. 신정부 경제 정책에 따른 위협요소

□ 천연자원, 내수산업 보호 등 민족주의 성향도 공존

- 자원 민족주의에 성향에 따른 자원분야 진출 한계
 -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재정수입 증대, 천연자원 보호를 위해 제련소 건설, 광물수출세 부과, 광산 지분 제한 조치 시행
- 1) (제련소 건설 의무화) 2009년 제정된 신평물법으로 석탄을 제외한 미가공 광물은 제련소 보유 또는 계획제출, 광물수출세 납부기업만 수출가능
 - 한국이 인도네시아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석탄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천연자원 수출제한 조치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 2) (광물 수출세 부과) 유예기간('14-'16) 동안 수출되는 광물은 가공 정도에 따라 20%이상의 수출세부과, 매 6개월마다 세율강화로 '16년 최대 60% 도달
- 3) (광산 지분투자 제한) 대통령령(No 24. 2012)에 따라 생산 개시 후 6년 (상업생산 5년 후) ~ 10년 차내에 광업권 지분의 최소 51%를 인도네시아 내국인에게 의무 양도

□ 경상수지 적자 축소 및 수입규제 정책에 따라 진입 장벽 강화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역사상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폭 축소를 위해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추세
 - * 전자제품 수입규제 강화, 수입 라이선스 및 국가표준인증 대상 품목 확대 등
- 조코위 대통령은 국가 표준 인증 품목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자국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강조. 이와 관련하여 외국 제품의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여소야대 현상, 정부재원 부족 등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개혁 지연에 따라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도 축소 가능성 존재

○ 조코위 정부, 여소야대로 정책 실행에 난항 예상

- 총 의석 560석 중 4개 여당진영이 207석, '프라보워 수비안또'를 중심으로
한 4개 야당 진영이 253석, 2개 중립진영이 100석 각각 차지

* 여당(207) : PDI-P(109), PKB(47), Nasdem(35), Hanura(16)
* 야당(253) : Golkar(91), Gerindra(73), PAN(49), PKS(40) /
* 중립(100) : Demokrat(61), PPP(39)

- 또한 인도네시아는 정책 실현을 위해 의회, 군대 등과의 견제와 조화가
필요하나 조코위 대통령의 약한 정치적 기반이 취약점으로 작용 가능

○ 주요 공약 실천에 필요한 정부재원 마련 필요

- 2009-2013까지 5년간 총 정부지출의 15%인 993조 루피아가 각종 보조금에
투입(연료보조금 629조 루피아, 10%차지)
 - * 동 기간 인프라개발 및 국방-교육-보건-사회 분야 지출은 636조 루피아, 825조
루피아가 각각 10%, 13% 차지
- 현재 재검토를 추진 중인 2015년 수정 예산안에서도 연료 보조금이 276조
루피아가 총 예산 2,039.5조 루피아 중 13.5%를 차지함에 따라 신정부는
재정 부담을 안고 출발
- 재임 중 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와 세수비중 확대(12% → 16%)없이는
정책추진을 위한 가용예산 확보 난망

3. 한·인도네시아 교역 및 투자 전망

□ 교역 전망

- 2013년부터 이어지는 경제성장 둔화 추세로 교역규모 감소 추세
 - 2013년 저조한 경제성장(5.78%), 환율 불안, 유류 보조금 삭감 등의 요인으로 2013년 한국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전년대비 17% 감소
 - 한국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증유, 천연고무 등이며 해당 5대 품목이 전체 수입의 약 66%를 차지, 2013년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LNG 및 유연탄 수입 감소

한-인도네시아 교역현황 (단위 : 백만 US\$, %)

구분	2013년		2013년(1~9월)		2014년(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11,568	-17.1	8,620	-13.5	8,470	-1.7
수입	13,190	-15.9	10,012	-16.3	9,354	-6.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신정부의 정책 효과,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2015년 경제 반등세로 전환이 예상되며, 한국-인도네시아 교역도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됨
 - 신정부 출범으로 부정부패 척결, 행정개혁, 부의 불평등 개선 등을 포함하는 개혁정책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라 통화정책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최근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외국인투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판단할 때 급격한 자본 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 자원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는 하양 추세이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타 신흥국에 비해 안정적인 성장률 보이고 있음
- * 2014년 7.4%, 2015년 7.1%

- 교역 극대화 위해서는 한-인도네시아 CEPA의 빠른 협상 재개 필요
 - 현재의 한·아세안 FTA는 양허유예, 日-인니 EPA 체결 등으로 효과 반감

- * '16년 이후도 최대 5-50%까지 관세 유지가 가능한 인니측 민감, 초민감 품목에 철강, 자동차, 기계류 등 우리 주력수출 제품 다수 포함

인도네시아 민감·초민감 품목군 중 우리 주요 수출품

민감 품목(SL)	초민감품목(HSL)	
	관세 인하 대상	양허 제외
의류 및 부속품, 인조섬유, 철강, 냉장고, 기계류, 전자 제품, 자동차 및 부품	형강, 비금속, 강관, 코일	농산물, 주류, 폐의료용품

- 일본의 예를 볼 때, CEPA 타결 시 우리 수출은 최대 2배 이상 증가 예상
- * 일본 對인니 수출은 '08년 EPA 체결 후 '07년 65.3억에서 '08년 151.3억으로 130% 급증, 이후 빠른 성장세 지속

□ 투자 전망

- 한국은 2014년 1-3분기 기준, 인도네시아의 제 7위 투자국이며, 포스코, 한국타이어 등 대규모 투자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소액 투자건수 증가
- * 2014년 투자건수는 42% 증가한 반면 금액은 54% 감소

한국 對인도네시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US\$)

국가	2011		2012		2013		2014.1-3Q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한국	456	1,219	421	2,205	807	2,205	833	752

자료원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 업종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는 2013년 기준 투자건수 기준 제조업 63%, 서비스업 33%,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이 5% 차지
- 투자진출 유망 분야 중심으로 투자 확대될 것으로 전망
- ① 인도네시아 최고 중산층 보유지역인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기진출 마트, 홈쇼핑·전자상거래 업체를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유통사업
 - * (예시)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밴더사업, 채널을 활용한 공동 브랜드 사업 등

- ② 헬스케어, 요식업, 문구류 등 ‘한국식 라이프스타일’과 접목된 국산 토종 프랜차이즈 업종
 - * (예시) 피부케어 슝, 퓨전음식 프랜차이즈 등

- ③ 만성적인 전력부족으로 해소를 위해 발전분야 진출 유망, 특히 수력, LNG 활용 소형 발전(2~5MW 내외)사업 지속적인 증가 예상
 - * 대형발전소는 IPP형태, 소형발전은 IPP 및 시공-O&M 계약이 일반적

- ④ 신정부는 중장기개발계획(MP3EI), ‘Sea toll Road’ 건설, 도로 2,000km 확충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예정으로 엔지니어링, 시공분야 유망

- ⑤ 인도네시아 정부가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중인 총 558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창조경제 분야 진출 추진, 총 15개 카테고리 중 디자인, 패션, 영상·사진, 게임, 컴퓨터 서비스 및 S/W개발 등이 유망

2014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4-001	경제제재 완화대비, 對이란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4.1
14-002	2014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1
14-003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1편 -	2014.3
14-004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2편 -	2014.3
14-005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3편 -	2014.3
14-006	한미 FTA 발효 2년, 대미 수출성과 분석	2014.3
14-007	한-캐나다 FTA 15대 수출유망품목	2014.3
14-008	2014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3
14-009	한-호주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2014.4
14-010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1	2014.4
14-011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2	2014.4
14-012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3	2014.4
14-013	한-터키 FTA 1주년 효과분석 및 시사점	2014.4
14-014	국내외 기업의 우리나라 FTA 활용전략	2014.4
14-015	인도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4.5
14-016	태국 정정불안에 따른 영향 및 전망	2014.5
14-017	일본기업의 최근 해외투자진출동향과 시사점	2014.6
14-018	우크라이나 대선 이후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2014.6
14-019	변화기의 쿠바, 우리기업 접근전략	2014.6
14-020	남아공 대선과 산업경제 분석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시사점	2014.6
14-021	한캐 FTA 협력 유망 4대 산업	2014.6
14-022	한-EU FTA 3주년 효과분석 및 성공사례	2014.6
14-023	러시아 환경산업 분석 및 진출 방안	2014.6
14-024	미국 시장 핵심 소비계층 공략 방안	2014.6
14-025	한-EU FTA 및 국가브랜드 관련 유럽바이어 반응조사	2014.7
14-026	2014년 3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7
14-027	2014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2014.7
14-028	중동 EPC 기업 현황 및 협력방안	2014.7

14-029	미국의 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통상 전략 분석 - 2014 미국-아프리카 정상회담 이후 전망	2014.8
14-030	비셰그라드를 공략하라 - 중부유럽에서 펼쳐지는 한·중·일 삼국지	2014.8
14-031	일본 소비세 인상 이후 3개월 동향 분석	2014.8
14-032	일본 신 성장전략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안	2014.8
14-033	일본의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유치 전략	2014.8
14-034	EU의 수입품 통제·관리 현황 및 시사점	2014.9
14-035	2014년 4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10
14-037	우리나라의 최근 수출 둔화 요인과 시사점	2014.10
14-038	미 중간선거 결과 이후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	2014.10
14-039	한일 교역규모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	2014.10
14-040	엔저에 따른 일본 수출환경 변화와 KOTRA 대응전략	2014.11
14-043	2015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입 전망과 시장여건	2014.12
14-044	미국 서부 물류대란 현황과 우리기업 대응방안	2014.12
14-045	TPP 협상 동향과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2014.12
14-046	인도네시아 신정부 출범과 향후 경제정책 전망	2014.12
14-047	원전사고 이후 변화된 일본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방안	2014.12
14-048	일본 총선(12.14) 결과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2014.12
14-049	지역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전망	2014.12
14-050	한-베트남 FTA 타결에 따른 수출유망상품	2014.12
14-051	WTO 무역원활화 협정 주요내용 및 영향	2014.12
14-052	글로벌 환경상품 시장동향과 유망품목	2014.12
14-053	호주 조달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4.12
14-054	멕시코 에너지개혁과 시사점	2014.12
14-055	대미국 외국인직접투자(GMR) 동향 분석	2014.12

□ KOCHI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4-001	중국을 읽는 50가지 키워드	2014.1
14-002	후베이성 자동차부품 산업현황 및 진출전략	2014.2
14-003	[중국 경제학자 초청 좌담회] 2014 중국 경제 전망	2014.2
14-004	중국 농식품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4.3
14-005	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과 시장환경 변화: 분야별·업종별 영향과 우리의 대응	2014.4
14-006	[중국 경제학자 초청 좌담회] 최근 중국 경제 진단 및 향후 전망	2014.11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4-003	2013 KOTRA 글로벌 CSR 종합보고서	2014.2
14-004	2014 글로벌 취업창업대전 결과보고서	2014.2
14-005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환경분야 Q&A	2014.4
14-006	2014 중국 개정 상표법 신규대조표	2014.4
14-008	2013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4.5
14-009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3	2014.5
14-010	EU기금을 활용한 공공 프로젝트 수주방안	2014.5
14-011	SEOUL FOOD 2014 디렉토리 책자	2014.5
14-012	UAE 매립지 프로젝트 전문가 합동조사 보고서	2014.5
14-013	2014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2014.5
14-015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실무가이드	2014.5
14-016	러시아 에너지시스템 시장 현황	2014.5
14-017	2013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2014.7
14-018	Global Green Hub Korea 2014 결과보고서	2014.6
14-019	고객만족 실천가이드	2014.6
14-020	2014 U턴기업지원가이드	2014.7
14-021	2014 외국인투자가이드	2014.7
14-022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요약 번역본	2014.7
14-023	SEOUL FOOD 2014 결과보고서	2014.7
14-024	리 현지기업 실태 설문조사	2014.7
14-025	2014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상권 (세계편)	2014.8
14-026	2014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중권 (아시아 대양주편)	2014.8
14-027	2014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하권 (중국편)	2014.8
14-028	벨라루스 투자실무가이드	2014.8
14-029	Invest KOREA 2013년도 연차보고서	2014.9
14-030	Labor Law Guide for Foreign Investors (October 2014 Edition)	2014.9
14-031	2015년 해외시장 진출 호부진 품목 (국가 및 무역관별)	2014.10
14-032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CSR 요구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014.10

14-033	KOTRA 국제개발협력사업 가이드북	2014.10
14-034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를 위한 수출종합 가이드북	2014.10
14-035	미국 투자실무가이드	2014.11
14-036	중동 주요 발주처 벤더등록 GUIDEBOOK	2014.11
14-037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2014.11
14-038	U턴기업 지원제도	2014.11
14-039	세계로 뻗는 우리기업 성공스토리	2014.11
14-040	2015 Guide to Living in Korea	2014.12
14-041	2015 韓國生活 가이드ブック	2014.12
14-042	2015 韓國 生活指南	2014.12
14-043	주요국 투자유치체계 및 인센티브 제도 조사	2014.12
14-044	중동 산업다각화 보고서	2014.12
14-045	동유럽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 전문가 합동조사 보고서	2014.12
14-046	2015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2014.12
14-047	[별권] 2014 ASEAN 주요국가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2014.12
14-049	2014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2014.12
14-050	2014 외국인투자기업 디렉토리	2014.12
14-051	글로벌파트너링 사업 성공사례	2014.12
14-052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수출 마케팅 가이드 Ver3	2014.12
14-053	2014 Global FDI Briefing	2014.12
14-054	중소기업 50대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 1권	2014.12
14-055	중소기업 50대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 2권	2014.12
14-056	중소기업 50대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 3권	2014.12
14-057	중소기업 50대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 4권	2014.12
14-058	중소기업 50대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 5권	2014.12
14-06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2014.12
14-062	환율변동에 따른 외국인투자 영향분석	2014.12
14-063	Invest KOREA Annual Report 2013	2014.12



작성자

◆ 자카르타무역관	김은희 과장
◆ 신흥시장팀	권오승 과장
◆ 신흥시장팀	김태룡 대리



Global Market Report 14-046

인도네시아 신내각 분석과 향후 전망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4년 12월 29일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